

'주52시간 개편' 노동계 반발

“무제한 노동 허용하는 것”

“노동시간 단축은 말뿐, 대책은 거꾸로... 주 52시간제 무력화”
 직무성과급제 확대엔 “장기근속자 임금 깎아... 초임 높여야”

노동계가 23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두고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연장근로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먼저 연장근로 단위 확대와 관련,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침에 대해선 “장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관련해선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

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두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내부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교육비를 책임지고 노인 부양 의무까지 지는 사회구조를 감안할 때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당시에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생애 총임금을 고려해야한다. 단지 지금의 임금만 가지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며 “높은 연공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30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닌 초임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수새를 자임하고 나서는 가리는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권한과 임금 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소통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발전 위해 땀 것” 다짐

민주 도당,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3일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소통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땀 것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당은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광역의원 37명과 기초의원 168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심장과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실 주역이 곧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당선진들이다”라며 “책임감을

갖고 전북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라며, 이번 워크숍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의미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도 인사말을 통해 “전북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과 집행부와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에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다”고 말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구성한 민품, 민주당의 대표선수로써 전북을 위해 힘차게 뛰어올 것”을 부탁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김성주 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내전환 세대의 균형 발전과 지역 역량 강화)과 김두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가(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마인드 제도)가 강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남원시의회, 제9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22일,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 18명을 초청해 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당선인과의 시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대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원활한 개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인 상경례 및 직원 소개, 의회 현황 및 공지사항 안내, 청사견학 등이 진행됐다.
 양희재 의장은 “감동이 있고 마음이 같아도 구성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의회는 완전히 새로운 의회”라며 “제9대 의회는 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구성된 첫 의회인 만큼 초심을 믿고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제9대 남원시의회 당선인은 △가선거구 소태수(더불어민주당) 윤자홍(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손종열(더불어민주당), 전평기(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김갑수(더불어민주당), 오동환(더불어민주당), 염봉섭(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김영태(더불어민주당), 이기열(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김정현(더불어민주당), 김한수(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강인식(더불어민주당), 이미선(더불어민주당), 한명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창숙(더불어민주당), 이숙자(더불어민주당) 등 16명이다.
 한편 의회는 7월 4일 예정된 제25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정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남원=김기우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의정 생활 마무리 앞둔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일문일답’

“지역 발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살 것”

6회 연속 의원 배지를 달고 24년간 의정활동 해와
 한옥마을 브랜드화 등 문화·예술계서 많은 업적 남겼다

▲6회 연속 의원 배지를 달고 24년간 의정 활동을 했다. 김남규 의장은 말했다.
 의정 활동의 기본에 충실했다. 6번이나 당선된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과 발에 있었다고 본다. 가슴으로 다 가지고 발로 뛰는 의정 생활을 했다. 꼭 가야 할 곳에 남들보다 먼저가 있었고 감동이 있는 지역구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 주민들에게 항상 감사한 생각이다.



“경험 부족한 후배들에게 길 열어줄 생각에 의정 활동 마감 결심

퇴임 후 시민거버넌스 역할 전주 발전 밑그림 그리고파”

▲내심 7선 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의정 활동을 마감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솔직히 7선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당에서는 6·1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을 많이 우대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이지만 과감하게 물려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있었다. 처음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소외된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배달을 했다. 그 때 도시락을 두 손에 받으며 기뻐하던 그 분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이 30일 24년 동안의 의정 생활을 마무리한다. 후배들을 위해 일문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이 아름다운 퇴장의 이유가 됐다.
 김 의장은 제9대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11대까지 무려 여섯 차례나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단 인물이다. 그는 특히나 20년 넘는 의원 생활 중 문화·예술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도 받는다. 퇴임을 앞둔 김 의장을 만나 그동안 회고하고, 퇴임 후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은데 가장 좋았거나, 보람을 느낀 일이 있다면? IMF 시절 함박눈이 평평 내릴 때, 제가 배달하는 도시락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었다. 처음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소외된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배달을 했다. 그 때 도시락을 두 손에 받으며 기뻐하던 그 분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처음 의정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항상 근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주는 전국적으로 문화 분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싶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자기 브랜드를 만든 것 같다.
 의원 생활 초창기인 20여 년 전에는 문화 부서를 다들 기피했다. 하지만 나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나후턴 북부권 개발



을 위해 에코시티 개발과 학교 유치, 건지산과 오송제를 명품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금도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반대로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 같다. 시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시민이 원하는 의정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가 가장 아쉬운데, 그랬던 기억이 바로 시내버스 파업이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제때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속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은 지금도 아깝기만 하다.
 참한동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했는데, 시내 전체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시민이 불편을 크게 겪었던 것은 24년 의정 생활을 되돌아볼 때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다.

▲전북 정착권 인사 중, 문화 예술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는 평가가 있다. 그동안 문화 예술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왔나? 한옥마을을 브랜드화하는 데 힘을 많이 쏟았다. 20여 년간 한옥보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옥마을의 변화를 이끌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첫 회부터 열정을 다 했다. 지금 전주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영화제가 됐다.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지만 영화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맛의 도시의 위상을 발판으로 음식 관광과 미식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음식을 발판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후배 정치인들이 이끌어 갔으면 한다.

▲제11대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정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나.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과의 소통 부재, 여론 수렴의 한계 등이 그런 것이다. 의회는 정책 생산과 집행부 견제 역할에 더

욱 충실해야 한다. 시민에게 더 다가서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11대 전주시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12대 의회를 준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정책, 안법 분야의 강화와 홍보 분야의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의회 활동과 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퇴임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인가? 전주시가 앞으로 10~20년 후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시민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싶다.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관광과 예술, 경제의 도시로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를 통해 시민거버넌스가 시민운동 차원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4년 동안 아끼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술밥을 먹으며 지역 발전에 힘을 쏟은 동료, 선·후배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의 삶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살고 싶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한다.
 24년 의정 생활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꽃길로 단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전주 시민의 김남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윤상 기자